



기아차 광주공장, 소울 양산 다짐결의
기아차 광주공장은 1일 연구동 대강당에서 임직원 및 협력사 대표, 광주지역 경제단체가 함께한 가운데 기아차 광주공장의 대표 모델인 소울 신차(프로젝트명:SK3)의 성공적인 양산을 다짐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광주공장을 대표하는 소울 신모델 출시인 만큼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품질을 조기에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마련됐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전남 무안, 공공비축미곡 6569톤 매입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5일부터 산물벼 매입을 시작으로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한다.

군은 1일 올해 공공비축미곡 물량 6569톤(포대벼 4249톤, 산물벼 2320톤)에 대해서 읍·면별로 오는 2일까지 배정을 마무리 짓고 5일부터 산물벼 매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배정량을 비롯하여 쌀 전업농 배정량, APTERR(해외공여)용 배정량을 포함한 물량으로 전년도 배정물량 5784톤보다 785톤 늘어났으며, 40kg 포대로 환산할 경우 지난해 보다 1만9632포대가 늘어난 물량이다.

공공비축 미곡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생산지 쌀값을 반영하여 12월중 확

정되며 중간정산금(3만원/포대)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우선 지급해 농가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무안군은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 “신동진”, “일미”외 다른 품종의 혼입을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표본조사)을 실시하여, 매입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매입 장소에서 품종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하고, 매입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할 계획이므로 농가에서는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에 다른 품종이 출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남 무안=양수영 기자 ysn6313@

부서간 소통 강화 ‘협업포인트제’ 운영

광주 북구, 연말까지 시범운영 우수직원 포상·인센티브 부여

광주시 북구가 협업을 통한 행정역량 결집으로 업무성과를 높이는 조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1일 북구에 따르면 조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없애고 직원·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협업포인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런 제도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다른 부서·직원과 도움을 주고받거나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 협업한 직원 간 감사메시지와 함께 포인트를 전달하는 제도다.

협업 포인트는 직원 1인당 매월 200포인트씩 자동 배정받아 협업 상대방에게 1회 10포인트씩 감사메시지와 함께 보낼

수 있다. 다만 같은 부서 직원 간에는 보낼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서도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아울러 태스크포스(TF) 활동 및 시·구정 연구모임 등 참여, 각종 공모사업 응모, 규제개혁·제도개선 과제 제출 등 업무 정보와 지식 공유 시에는 특별 협업포인트도 부여된다.

북구는 금년 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협업포인트제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운영상 개선점을 파악한 후 2019년부터 본격 운영에 나서며, 월별로 협업 포인트 실적을 합산해 우수 부서·직원에게는 포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직원들간 격의 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은 조직문화조성을 통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일자리 10만개 창출·고용률 68% 달성 목표

광주시, 일자리정책 4년 로드맵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4대전략 10대 중점·80개 세부과제 선정

광주시는 1일 제2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선 7기 일자리정책 4년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천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김진형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김일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중요로운 일자리 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내세운 이번 로드맵은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통해 고용률 68%를 달성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4대 전략, 10대 중점과제, 80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해 연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 고용률은 63.8%로 전국 평균 66.6%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새롭게 창출되는 10만 개의 일자리는 재정지원 일자리 1만6400명, 전략사업 7000명, 창업·투자유치 9000명, 취업지원 2만9000명, 사회기반시설 1만7000명, 사회적경제 1600명, 문화관광 9000명, 사회서비스 2000명, 기타 9000명 등이다.

광주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8월 17일 일자리위원회를 발족하고 1개 일자리 분야별 전문 기획단(T/F)을 구성했다.

또 수차례에 걸쳐 현장 전문가, 기업 관계자, 학계, 연구원 등이 참여한 토론회와 논의를 거쳐 4대 전략, 10대 중점과제, 80개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4대 전략은 인프라 혁신,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등이다.

광주시는 4대 전략별 주요 추진내용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을 지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담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로드맵 점검단’을 통해 80개 세부 추진과제에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고 최고의 복지인 만큼 시정의 역량을 최우선으로 해 일자리 창출에 쏟을 것”이라며 “로드맵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광주=오종일 기자 raser506@metroseoul.co.kr

‘추억과 낭만 가득’ 목포항구축제 5일 개막

풍물패·MTB자전거팀 등 공연 할어 경매·파시수랏간 회터 운영

1897년 개항한 목포는 문화와 예술이 번성하고 풍요로움이 넘쳐나던 활력 넘치는 국제적 항구도시였다.

세월의 풍파와 시련 속에서 구성지게 ‘목포의 눈물’을 부르던 목포 사람들은 목포항구축제를 통해 영광스러웠던 그때를 다시 펼쳐보인다.

올해 축제는 오는 5일 오후 5시 30분부터 목포항 여객터미널에서 시민과 관광객, 전문공연팀이 모여 역동적인 항구도시, 맛과 멋을 즐기는 예향의 도시, 낭만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길 바라는 희망을 담아 만민기를 흔들며 펼쳐는 ‘풍어파시길놀이’로 막을 연다.

길놀이는 뱃고동 소리와 함께 만선을 기원하는 행렬이 목포항 일원의 흥을 북돋는다.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것을 주제로 한 행진 등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풍물패, MTB자전거팀, 해군 군악대, 어구상자 퍼레이드 등이 축제의 물길을 연다.

이어 시립무용단의 공연 ‘목포항 파시



목포항구축제 선상경매.

풍(波市風)’을 비롯해 트롯가수들이 장식하는 목포항 파시 음악회, 항구 불꽃쇼 등으로 축제의 서막을 펼친다.

성어기에 열리는 목포항구축제는 참조기, 병어, 민어 등 제철 수산물로 가득하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 처음 시도하는 할어 경매와 즉석에서 요리해 먹을 수 있는 파시수랏간 회터와 구이터가 식도락가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먹갈치와 참조기, 병어를 저렴한 가격으로 한가득 구입할 수 있는 수산물 최저가·최고가 경매행사인 ‘어생그랜드세일’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전통한선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리는 선상경매 및 중매인 체험도 항구만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 삼학도 입구에서 올해 처음 선보이는 ‘낭만 정원카페’와 ‘목포항 낭만 열차’가 낭만과 과거로의 추억여행을 선물한다. 거울아트, 트릭아트, 올해 처음 기획한 청춘창업 1897과 함께하는 드론 축구체험, 3D프린터체험, 그림자 극장, 장갑인형극, 평창올림픽 로봇물고기 체험, 맨손물고기잡기 체험, 도깨비의 목화 체험 등 체험프로그램도 가득하다.

/전남 목포=김원우 기자 wonyoo9700@

인천시, 주거복지 향상 일환 ‘원도심 하우스링 닥터’ 실시

인천시는 동구 만석2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무료점검 서비스인 ‘원도심 하우스링 닥터’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하우스링 닥터는 전문가 8개 단체가 노후 주택에 직접 찾아가 건축물을 점검하면서 현장에서 건축물 유지관리 방향을 주민들에게 알려준다.

이번 점검대상 아파트는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되고 거주환경과 유지관리 개선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하우스링 닥터 활동으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oj@

온라인 시민청원제 시스템 구축·운영

목포시, 홈페이지에 전용창구 개설

목포시는 창의와 참여로 시민에 의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청원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민청원제는 김종식 시장의 시민소통 정책 공약으로서 부적절한 정책이나 불편을 느끼는 시정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다양한 창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설됐다.

‘온라인 시민청원제’는 목포시 홈페이지의 열린시장길 코너에 전용창구를 개설하고 지난 13일부터 임시 개통했으며 10월 중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청원 추천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500명 이상 지지를 얻을 경우 성립된다. 시는 관계자 의견 수렴, 관련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방안을 마련해 2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온라인으로 답변하고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민원은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므로 청원대상은 시 주요정책, 불합리한 제도, 현안사항 등에 대한 정책적 건의나 개선 요구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청원제는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는 공익적인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 창구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성실히 대답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적 제안도 면밀히 검토해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김원우 기자

오늘의 날씨

10월 2일 (화)
음력 : 8월 23일

수도권 날씨
11 ~ 22°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6:28 | 해질 / 18:15

연천 8/21, 동두천 8/22, 가평 7/21, 파주 7/22, 서울 11/22, 양평 9/22, 인천 13/21, 수원 11/21, 용인 11/21, 평택 9/2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